

# 73 決算

科學韓國 構築에 全力하는 科總

汎國民 科學化 운동에 적극참여

研究調査 및 센터建立 事業에도 拍車

◆.....이제 73년도 저무렸다.....◆

◆.....지난 한해동안 우리 科學界는.....◆

◆.....實로 많은 變化를 겪어왔다. 特히.....◆

◆.....우리 憲政史上 처음으로 “維新憲法에.....◆

◆.....國民經濟의 발전과 이를 위한 科學技術은.....◆

◆.....暢達振興되어야 한다”고 明文化한데 힘입.....◆

◆.....어 半萬年歷史上 그 由來를 찾아볼 수 없.....◆

◆.....을 정도로 活潑한 움직임을 보였다. 따라.....◆

◆.....서 우리나라 科學技術團體의 總本山인 韓.....◆

◆.....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도 숨가쁜 지.....◆

◆.....난 한해를 보냈다. 지난 1年 동.....◆

◆.....안의 倣적을 더듬어 功過를.....◆

◆.....따져 보기로 한다.....◆

## 1. 研究調査事業

해방후 오늘까지 속제로 넘겨졌던 科學技術用語制定事業을 벌려 “生活技術 用語集” 3,000부(4×6판) 發刊 配布했다. 日常生活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外國語 特히 日本語의 무질서한 사용등을 時急히 우리말로 바꾸어 制定, 정화 報及함을 그 目的으로해서 推進해온 이 用語制定事業이 今年에 첫선을 보이게 된 것이다. 이는 많은 人員(연인원 4,243名)과 各種 委員會(特別小委, 咨詢위, 審議分科委, 審議小委(7인) 審議委)를 設置 여러차례의 審議를 거치고 또 1973年 2月 1日에서 5月31日까지 4個月間의 公청 期間과 審議過程을 거쳐 科學技術處와 文敎部의 승인을 얻어 發刊된 것이다. 그런데 이번 發간 配布된 “生活技術用語集”은 家庭, 建設, 機械, 農水産, 電氣電子등의 5個分野로 分類制定된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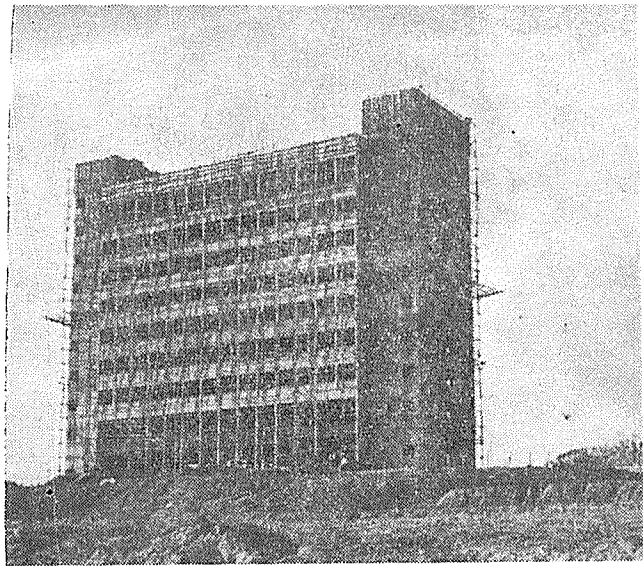
## 2. 實效 위주로 科學活動支援

國民生活科學化와 農村近代化를 爲한 事業을 벌였으며 今年들어 學會學術活動支援에 13,380,000만원을 交付했고 年2회에 걸친 學術講演 및 세미나를 開催했다. 72年度의 事業實績을 考慮해서 重點的 育

成을 기하기 爲한 今年度の 科學技術學會 學術大會에 關한 補助事業은 A, B, C級으로 區分해서 政府의 補助金으로

- ◇ A級——9個學會에 5,040,000만원
- ◇ B級——17個學會에 5,040,000만원
- ◇ C級——29個學會에 3,300,000만원을 技援했던 것이다.

그리고 “科學의 날”을 記念하여 73年 4月 20~21 韓國日報社 講堂에서 工科學術教育 및 產學協同과 地方大學의 特性化에 關한 研究를 爲하여라는 主題로 斯界有名人士 및 外國專門人士를 초청 세미나를 開催했으며 73年 5月 3日 農村近代化 및 國民生活科學化에 關한 세미나를 열어 全國民的科學化運動의 方向설정에 기하였다.



〈工事中인 科技센터 건물〉

### 3. 科學技術센터 骨造工業 끝내

科學人 및 그 團體의 搖籃이될 韓國科學技術센터 建立事業은 74年度 入住를 앞두고 完工을 向한 作業進行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.

영동開發地區에 그 巨大한 모습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는 科學技術센터는 地下 1層 地上 9層까지의 骨造工事が 完了되었다.

地대 2,500坪에 연건평 2,000坪이 되는 “韓國科學技術센터”의 建物에는 科學展示場이 마련되고 各學會 및 研究團體들이 入住함으로써 科學技術 및 情報의 신속한 交流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產學紐帶등 總和된 科學技術의 힘을 과시하게 될 것으로 그 展望이 크게 期待된다.

이 建物은 71年 4月 21日 起工式에 이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운 역경을 딛고 일어난 科總의 상징이라고도 하겠다.

### 4. 會誌 發刊 事業

國內外 科學技術界의 動向과 研究團體, 學會, 產業界의 現況등을 紹介하고 研究活動의 推進 및 產學協同, 國民生活의 科學化 風土 造成등의 교양역할을 하고 있다. 이 月刊 “科學과 技術”誌는 國배판 表 p.4. p.44의 책자로 每月 發刊 各種研究團體 및 研究機關, 政府機關등에 配布하고 있다.

### 5. “새마을” 技術支援

새마을 技術봉사 活動은 全國的인 “봄”이 일고있는 “새마을” 運動에 科學技術이 參與함으로써 보다 좋은 效果를 결우기 爲한것이다.

새로운 知識과 技術을 보급, 移植시켜 소득증대와 合理的인 活動을 하도록 努力하고 있다. 農水產 및 工學, 保健衛生, 生活科學등 4個 支團으로 構成되어 活動하고있는 봉사단은 이해에 새마을 技術便覽을 發刊 自然部落 새마을 指導者들에게 配布했다. 營農知識과 農工分野 및 保健衛生問題등에 關한 內容을 주축으로 알기쉽게 편집발간한 이 技術便覽은 農村近代化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展望된다.

또 放送과 新聞을 통한 技術指導는 크게 각광을 받던것으로서 K.B.S.를 통한 放送指導가 260회에 達했으며 서울新聞, 週刊 새마을新聞, 每日經濟新聞등 3個紙에 모두 99회를 掲載 地方에서 해은 營農 技術 및 生活科學을 指導 農漁民의 所得增大에 기여했다.

그리고 忠南牙山郡湯陽邑佐部리를 集中指導部落으로 선정 5회에 걸친 現地技術指導를 實施했다. 이는 理論과 實際를 병행 完全技術 移植마을로 造成하기 爲한 것이다.

現在 現地指導를 통해서 이 地域에 對한 所得增大事業은 地理的인 여건과 기타 환경상 고등소재의 하우스栽培技術을 普及시키는것이 가장 合理的이라는 結論을 얻었다. 이런 方向設定에 따라 74年度에 는 하우스 栽培와 소득증대를 꾀할계획이다. 이 새마을 기술指導活動에 動員된 科學人은 200여명으로서 近來에 없었던 높은 참여열을 보였다.